



The 31th Anniversary of World Drug Day

제 31회 ‘세계 마약퇴치의 날’ 기념식 ‘백두에서 한라까지 마약 없는 대한민국’

일시 2017년 6월 26일(월) 오후2시
장소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20층)
주최 식품의약품안전처
주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지난 6월 26일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제31회 세계 마약퇴치의 날 기념식’이 열렸다.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이하 마퇴본부)가 주관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주최한 이번 행사엔 손문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비롯해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남인순 국회 여성가족위원장, 박민표 대검찰청 강력부장, 불법마약류퇴치 유공자 등 28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기념식에선 일선에서 마약퇴치 활동에 모범을 보인 불법마약류퇴치 유공자 48명과 UCC 공모전 당선자가 식약처장으로부터 훈장·포장,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식약처장상 등을 수상했다. 마약퇴치에 공헌한 마그미상 수상자 14명엔 이경희 마퇴본부 이사장과 임준석 대한약사회 부회장이 각각 상패와 상금을 전달했다.

이경희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이사장은 기념사에서 “마약 문제는 일부 국가의 문제가 아닌 전 세계의 문제”라며 “모두가 힘을 합쳐 ‘백두에서 한라까지 마약 없는 금수강산, 건강한 대한민국’을 반드시 이룩하자”고 호소했다. 덧붙여 “국내 마약사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정부 부처 간 협력을 통한 치료 재활과 예방 교육의 강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 이사장은 6월 26일이 마약퇴치의 날 법정기념일이 되기까지 입법에 도움을 준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입법 대표 발의 의원인 성일종 의원 등에게도 감사를 표했다.

손문기 식약처장은 격려사에서 “마약퇴치의 날 법정기념일 지정 소식을 전하게 돼 기쁘다”며 “식약처는 마약류 안전관리 주무부처로서 대

검찰청·경찰청·관세청 등 유관 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철저한 마약류 관리, 대국민 교육·홍보, 중독자 재활 등을 통해 대한민국을 마약류 청정지대로 지켜나가겠다”고 선언했다.



‘제31회 세계 마약퇴치의 날’ 기념식 축하 효과적인 마약퇴치 활동 위해 사회·국가적 관심·노력 필요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마약류 사범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가정·사회를 피해를 끼치는 마약중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예방·홍보·재활 등의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 국회에서도 마약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남인순 국회 여성가족위원장

“학교 밖 청소년과 여성 마약류 사범이 늘고 있다. 이 문제에 여성가족위원회도 관심을 가지고 대처하겠다.”, “마퇴본부의 적극적 활동을 위한 예산 증액이 뒷받침 돼야 한다.”



김승희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마약 문제는 마퇴본부의 활동도 중요하지만 사회의 전반적 인식 개선이 동반돼야 좋은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 “마약류 통합망 구축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선 마약류 사용자를 범법자로 분류하는 방식은 재검토돼야 한다.”



성일중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향정신성의약품 남용을 막기 위해선 빅데이터를 활용한 국가의 시스템적 접근이 필요하다.”, “마약 청정국을 유지하기 위해선 범죄의 진화 문제까지 관심을 갖는 공직자의 사명감과 마약류 남용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국민의 관심이 요구된다.”, “마약퇴치의 날 기념일 입법발의도 이러한 열의에 의거 발의하게 됐다.”



박민표 대검찰청 부장검사

“대검찰청이 지난해 인터넷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한 이후 마약 매매·거래·권유 등과 같은 범죄의 적발이 증가하고 있다. 대검찰청도 단속 외에도 재범방지교육, 청소년 출장 강연, 예방 활동에 적극 참여해 마약 없는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일조하겠다.”

설운도 마약퇴치 홍보대사는 영상메시지로, 김상훈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은 축전을 통해 제31회 마약퇴치의 날 기념식과 법정기념일 지정을 축하했다.

6월26일은 마약퇴치의 날

이날 행사에선 20여년간 마약퇴치 운동에 헌신한 구분호 바다건강약국 대표약사가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상했다. 이용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가 근정포장, 박성수 세명대학교 교수 등 4명은 대통령표창, 강정혜 안동시보건소 약무주사 등 6명은 국무총리 표창, 동작구약사회 김경우 회장 등 30명은 식약처장 표창을 받았다.

제15회 마그미상 시상식에선 이경희 마퇴본부 이사장이 불법 마약 퇴치에 공헌한 부천시 약사회 박지영 부회장 등 14명에게 마그미상을 수여했다. 마그미상 후원단체인 대한약사회 임준석 부회장은 수상자에게 상금을 수여했다. 제31회 세계마약퇴치의 날 기념 UCC 6개 부문의 공모작 수상자를 대표해 최우수상 수상자인 추정하 씨가 손문기 식약처장으로부터 상장을 수여받았다.

6월26일 마약퇴치의 날 법정기념일 지정 축하 인사도 이어졌다. 설운도 마약퇴치홍보대사, 마퇴본부 정책자문위원인 박진실 변호사, 강남을지병원 조성남 원장, 경희대 약대 송연화 교수, 전남 마퇴본부 한은경 사무처장, 마약중독재활센터 박영덕 생활지도사 등이 영상을 통해 축하 인사를 전했다.

이어 아주대·남서울대·삼육대·치유상담대학원대 학생 43명은 마약 퇴치 활동에 적극 참여할 것을 다짐하는 **마약퇴치 선서식**을 가졌다. 마약퇴치 UCC 공모전 최우수상 ‘당신은 꽃보다 아름답다’의 발표자인 추정하 씨는 샌드아트 공연을 펼쳐 참석자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한편 이날 행사엔 전영구 전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이사장(한미약품 고문), 손여원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구분기 한국의약품안전관

리원장, 이은숙 한국병원약사회장, 이범진 아주대 약대 학장, 김성수 한국첨단산업교류협회장, 임준석 대한약사회 부회장, 홍옥녀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 이양구 동성제약 사장, 곤도 츠네오 일본 다르크 대표, 조성남 강남을지병원장, 구분호 마퇴본부 감사, 김종환 마퇴본부 부이사장을 비롯한 이사·지부장 등 다수의 내빈이 참석했다.

